

광주경총 “차기정부, 중기·소상공인 지원 정책 강화해야”

‘대선 공약 제안 중점 사업’ 확정…경제 불확실성 해소 맞춤 공약 발굴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소상공인 용자 확대 등 국정 반영에 역량 집중

광주경영자총협회(광주경총)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10대 대선 공약 제안 중점 사업’을 확정하고,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광주경총에 따르면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판결에 따라 혼란스러운 정국 안정과 경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지역 맞춤형 대선 공약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광주경총은 조기 대선에 대비해 광주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한 지역 맞춤형 대선 공약 과제를 신속히 확정하고, 차기 국정 과제 반영을 위해 역량을 집중할 계획

이다.

광주경총은 현재 하남 산업단지 등 6개 지역 산업단지 순회 간담회를 열고 경영 애로와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에 대한 회원사 의견 등을 모으고 있다. 특히 생존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원 방안 등을 마련 중이다.

광주경총은 이번 대선 공약에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요구하는 육성 지원 정책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회원 기업들의 의견을 추가해 보완할 방침이다.

광주경총은 일단 10대 대선 공약 제안 중점 사

업으로 ▲소상공인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융자 확대 ▲중진공 중소기업 정책 자금 지원 사업 확대 ▲안정적 외국인 노동자 제도 개선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 정책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임직원 출산 장려금 확대를 위한 간접세 부과 ▲중소기업 공동브랜드 제품 구매 확대 ▲중소기업·소상공인 플랫폼 구축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지원 ▲협동조합 지원 확대 등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발굴해 최종 제안할 계획이다.

양진석 광주경총 회장은 “광주시민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숙원 과제를 대선 공약과 차기 정부 국정 과제로 반영하기 위해 지역 대선 공약 발굴에 대응하겠다”며 “광주 미래 100년을 책임질 전략 과제들이 차기 정부의 국정 과제로 반영돼 대한민국의 발전을 뒷받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산불 피해 지역 가전 무상점검 삼성전자 서비스 재난 복구 특별 서비스팀 직원이 6일 경북 의성 실내 체육관에 마련된 이재민 대피소에서 가전제품 무상 점검·수리를 위해 산불 피해 주민과 상담하고 있다. <삼성전자 서비스 제공>

尹정부 임기 내내 추락한 경기지수…비상계엄 사태 이후 ‘최저치’

1월 순환변동치 98.4까지 하락
반도체 불황·내수 부진 등 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 임기 중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동행지수가 취임 초반 고점을 찍은 뒤 내내 하향세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12월 불법 비상계엄 사태 이후 가파르게 하락하며 임기 중 최저치를 찍었다.

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등에 따르면 지난 1월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98.4로 전달보다 0.4포인트(p) 하락했다.

이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2022년 5월 이후 가장 낮다.

2월 0.1p 반등하기는 했지만 앞서 석 달 연속 하락세가 이어진 데다 반등 폭도 작아서 상승세 전환 흐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동행지수 지표상 경기 하향 국면이 계속되고 있다는 의미다.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현재의 경기 흐름을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경기지수로 광공업·서비스업 생산, 소매판매·내수출하지수 등 7개 지표로 구성된다.

경기동행지수는 월별로 등락이 있지만, 윤 전 대통령 취임 초 정점을 찍고 하락하기 시작해 임기 내내 제대로 반등하지 못했다.

동행지수는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 5월 96.3으로 바닥을 찍은 뒤 재정 보강, 엔데믹 경기 회복 등 영향으로 상승하다가 2022년 9월(101.6)을 기점으로 꺾였다.

윤 전 대통령 취임 후 반년도 채 되지 않아 경기가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당시 경기동행지수가 하락세로 전환한 주된 이유는 반도체 불황이다.

광공업 생산지수(동행지표 구성지표)는 윤 정부 취임 직전인 2022년 4월부터 내리기 시작했고 추세는 이듬해 2월까지 11개월 연속 이어졌다.

반도체 불황이 고비를 넘기면서 경기가 살아

나는 듯했지만 이번에는 내수 부진에 발목을 잡혔다.

코로나19 사태가 끝난 후에도 소매판매(동행지표 구성지표)가 증가하지 않고 2023년 5월부터 1년 중 8개월간 뒷걸음질쳤다.

작년 상반기부터는 유례없는 건설업 불황이 가세했다.

건설기성액(동행지수 구성지표)은 작년 4월 4.1% 감소한 뒤로 지난 2월까지 11개월 연속 줄면서 동행지수를 끌어 내렸다. 경기지수 하락세는 특히 정치적 혼란이 극에 달했던 작년 12월 불법 비상계엄 전후로 뚜렷하게 나타났다.

작년 10월 99를 웃돌았던 동행지수는 석 달 연속, 총 0.9p 급락해서 지난 1월(98.4)에는 약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주저앉았다.

정부 관계자는 “동행지수는 2022년 9월을 정점으로 최근까지 계속 하향하는 추세”라며 “2월 소폭 반등했지만 앞으로 추세를 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한은 경제 마스터즈’ 발대식

광주·전남 대학생 40명 선발

한국은행(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지난 4일 ‘2025년 한은 경제 마스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사진〉

한은 경제 마스터즈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경력개발 기회 등을 제공하기 위한 참여형 경제교육 프로그램으로, 2019년부터 매년 운영하고 있다.

한은 광주전남본부는 올해에도 지역 소재 대학생의 이수하기 및 경제·경영 과목 이수학점, 지원 동기 등을 고려해 최종 40명을 선발했다.

발대식은 ‘오늘의 마스터즈, 내일의 경제 전문가’를 주제로 개최됐으며, 박완근 한은 광주전남 본부장과 전남대, 조선대, 순천대, 목포대 등 광주·전남지역 대학교 최종 선발자들이 참석했다.

발대식에 이어 화폐전시실 및 발권장구 견학, 한국은행의 기능과 역할 강의 등도 진행됐으며, 참가자들은 오는 12월 수료식까지 세미나 및 금융경



제강좌 수강, 문화체험 및 산업현장 견학, 자체 토론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된다.

금융경제강좌는 오는 10월 ‘트럼프 경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1회차 강좌로 시작해 연중 6회 진행할 계획이다.

전체 프로그램의 70% 이상을 참여하면 최종 이수자는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장 명의의 이수증과

기념품 등을 수여한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관계자는 “한은 경제 마스터즈 프로그램이 지역 대학생들의 취업 및 경력 개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경제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탄핵·공매도 재개에 증시 출렁…거래 종목 32% 급변동주의보 발동

지난해 ‘블랙먼데이’ 이후 최다 발동
코스피 ‘공포지수’ 7개월만에 최고

국내 증시가 지난 주 공매도 전면 재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계 발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등 슈퍼 이벤트에 크게 출렁이면서 거래 종목 3개 중 1개꼴로 변동성 완화장치(VI)가 발동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파면 결정 당일인 지난 4일 정치 테마주가 급변동하면서 VI 발동 횟수는 지난해 8월 ‘블랙먼데이’ 이후 8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4일까지 유가증권시장(코스피)과 코스닥시장을 합쳐 VI가 발동된 종목은 855개로 전체 거래 가능한 종목(2660개)의 32%에 달했다.

VI는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과 조치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급변하면 2분간 단일이 매매로 전환해 냉각 기회를 부여한다.

윤 대통령이 파면된 지난 4일은 VI 발동 종목이

308개로 코스피·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2660개 종목의 12%에 달했다. 장 마감 시점 기준 VI 발동 횟수는 757회로 지난해 8월 6일(1241회)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8월 6일은 미국발 경기침체 공포로 글로벌 증시가 폭락한 ‘블랙먼데이’ 다음 날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지수가 각각 3%, 6%대 급등했다.

지난 4일 VI 발동은 윤 대통령 파면 영향으로 극심한 롤러코스터를 탄 정치인 관련 테마주에 집중됐다.

이날 VI 발동 횟수가 가장 많았던 종목은 더블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테마주인 소프트캡프로 하루 동안 18차례 VI가 발동됐다.

또 다른 이재명 테마주인 에넥스(15회)와 형지 I&C(15회), 형지글로벌(14회)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테마주인 평화홀딩스(12회), 윤 전 대통령 테마주인 NE능률(7회) 등도 VI 발동이 잦았다.

공매도 전면 재개일인 지난달 31일에도 VI가 305회 발동됐으며, 탄핵심판 선고일이 확정된 지

난 1일은 VI가 367회 울렸다.

지난 3일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계 폭탄에 증시가 휘청이며 VI가 301회 발동됐다. 4일보다는 적지만, 지난달 일평균 VI 발동 횟수인 298.2회를 웃돌았다.

이달 들어 한국형 공포지수로 불리는 ‘코스피 200 변동성지수(VKOSPI)’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4일 VKOSPI는 전 거래일보다 2.72% 오른 26.80에 마감하며 지난해 9월 6일(26.81) 이후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VKOSPI는 옵션 가격에 반영된 향후 시장의 기대 변동성을 측정하는 지수로, 코스피가 급락할 때 급등하는 특성이 있어 ‘공포지수’로 통한다.

지난해 초 18.61을 기록한 VKOSPI는 ‘블랙먼데이’였던 8월 5일 45.86까지 급등했으며, 이후 점차 안정돼 올해 2월 14일 17.70까지 하락했다. 이후 20 부근에서 움직이던 VKOSPI는 공매도 재개일인 지난달 31일 25.35로 상승했으며, 지난 3일은 26.09로 올라선 뒤 지속해 상승세를 보였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연합뉴스

최고 기술인 가린다…광주기능경기대회 개막

11일까지 광주대표 선발

전국기능대회 광주서 9월 개최

지역 산업을 이끌어갈 미래 인재들이 경쟁하는 ‘광주기능경기대회’가 7일 개막한다.

광주시가 주최하고 광주시 기능경기위원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는 7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는 광주공업고 등 10개 경기장에서 금형 등 37개 직종, 324명의 선수가 실력을 겨룰 예정이다.

직종별 1~3위 입상자는 해당 직종의 기능사 시험이 면제되는 혜택을 받게 된다. 특히 1~3위, 우수상 입상자는 오는 9월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

전국기능경기대회에 광주 대표로 참가할 자격도 얻는다. 금메달 수상자는 70만원, 은메달 50만원, 동메달 30만원, 우수·장려상 수상자는 각각 1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윤옥균 한국산업인력공단 광주지역본부 본부장은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치열하고 수준 높은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지역 산업을 이끌 미래 기술 인재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16년 만에 광주에서 열리는 제60회전국기능경기대회는 오는 9월 20일부터 2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 등 6곳에서 진행된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바닥 기는 한국 경제…성장률 세계 29위

지난해 4분기 내수부진·계엄 겹쳐…1분기 역성장 가능성도

내수 부진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겹치면서 지난해 4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세계 주요국들 가운데 하위권에 머물렀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콜롬비아·리투아니아를 제외한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중국을 더해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전분기 대비)을 조사한 결과, 한국(0.066%)은 전체 37개국 중 29위로 집계됐다.

한은은 지난달 5일 ‘2024년 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치)’ 발표 당시 4분기 성장률을 0.1%로 공개했지만 반올림 전 실제 수치는 0.06%대로, 역(-)성장을 겨우 피한 수준이었다.

1~5위 아일랜드(3.613%)·덴마크(1.849%)·튀르키예(1.688%)·중국(1.600%)·포르투갈(1.542%)은 1%를 훌쩍 넘었고, 경제규모가 훨씬 더 큰 미국(0.607%·17위)과 일본(0.556%·20위)도 우리나라보다 성장률이 높았다.

한국의 세계 하위권 성장 성적표는 벌써 세 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성장률은 작년 1분기 시장 기대를 뛰어넘는 1.3%를 기록할 당시만 해도 중국(1.5%)에 이어 6위 수준이었다.

하지만 곧바로 2분기(-0.228%) 기저효과 등에 뒷걸음쳐 32위로 추락했고, 3분기(0.1%)에도 뚜렷한 반등에 실패하면서 26위에 그쳤다.

소비·건설투자 등이 살아나지 못하는 상태에서 12월 계엄과 탄핵 정국까지 이어지자 내수는 더 위축됐고, 결국 4분기(0.066%·29위) 역시 0%대 성장률과 30위 안팎 하위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올해 1분기(1~3월) 성장률도 0%대에 힘겹게 턱걸이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정치 불안 속에 대규모 산불 사태까지 겹쳐 소비·투자 등 내수 부진이 지속된 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아직 영향을 미치지 전 인데도 수출 증가세까지 둔화 조짐을 보였기 때문이다.

한은의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1월 수출액(498억1000만달러)은 1년 전보다 9.1% 줄었다. 작년동월대비 기준으로 2023년 9월(-1.6%) 이후 16개월 만에 첫 감소다.

이에 따라 한은이 지난 2월 제시한 올해 1분기 성장률(전 분기 대비) 전망치 0.2% 달성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삼성월렛’으로 17개 은행 ATM서 입출금 가능

모바일 현금카드가 삼성전자의 디지털 지갑인 ‘삼성월렛’에 탑재된다.

한국은행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와 금융결제원, 삼성전자가 7일부터 모바일 현금카드와 삼성월렛 연계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용자들은 삼성월렛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17개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 입출금, 상거래 결제, 거스름돈 적립 서비스 등을 모두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한은이 의장을 맡은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측은 “앞으로도 금융 소비자의 다양한 지급 수단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급 시장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로또복권 (제1166회)						2등 보너스숫자
14	23	25	27	29	42	16
등 위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2,072,319,938				14
2	5개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60,442,665				80
3	5개 숫자일치	1,725,085				2,803
4	4개 숫자일치	50,000				147,837
5	3개 숫자일치	5,000				2,456,735